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4 호 12 월 20 일

평양 근로자사 1964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24호 (262)
1964년 12월 (하)

차 례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자

오늘 우리의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는 7 개년 계획 수행에서의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힘차게 불러 일으켰다.

전원 회의가 제시한 1965년 계획과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방도들은 7 개년 계획의 중요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명백한 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우리의 근로자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지금 전체 근로자들은 7 개년 계획의 네 번째 해를 결속 짓고 그 다섯 번째 해를 준비하기 위한 눈부신 로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원 회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의 정확한 정책과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로력 투쟁에 의하여 금년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는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금년에 공업 부문에서는 그 전진 속도를 견지하면서 중공업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에 계속 힘을 집중한 결과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강계 청년 발전소가 새로 조업하고 강선 제강소의 인발 강관 직장,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석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 공장을 비롯한 중요 대상들의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평양—신의주 간 철도 전기화 공사를 단시일 내에 완공한 것을 비롯하여 철도 운수의 기술적 개건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중공업의 지원 밑에 새로운 경공업 공장들이 건설되고 지방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와 경공업의 원료 기지가 일층 강화되였으며 중앙 공업 기업소들에 전반적으로 생활 필수품 직장들이 꾸려졌다.

농업 부문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시한 길을 따라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강력히 추진되였다. 금년에 장마와 폭풍우 등 불리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농업 생산은 계속 확고히 발전하였다.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도 더욱 높아졌으며 특히 국가의 막대한 방조와 혜택에 의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급속히 향상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는 7 개년 계획의 나머지 3 년 간에 인민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였다.

래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천리마의 속도를 견지하며 7 개년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진의 해이다.

전원 회의가 지적한 바와 같이 1965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구현하는 것이다.

최근 년간의 실천적 경험은 공업과 농업에 새로 창설된 관리 체계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우월한 사회주의 경제의 관리 형태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지금 문제로 되는 것은 새로운 사업 체계의 위력과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 것이다.

이미 공장, 기업소에 확립된 새 사업 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킴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성, 국 지도 일'군들의 사업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대안의 사업 체계의 기본 요구는 모든 관리 운영 사업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생산에 대한 집중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성, 국들이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아래를 도와 주고 군중을 발동하여 문제를 푸는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함으로써만 공장, 기업소에 수립된 생산 지도 체계, 계획화 체계, 자재 공급 체계 등의 위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며 모든 관리 운영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지도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 갈 뿐만 아니라 내려 가서 아래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아래 일'군들을 도와 줄 데 대한 청산리 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내려 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풀릴 수 없으며 기업 관리의 구체적 측면에 파고 들어 가서 기술 상태는 어떠한가, 자재의 보장 정형은 어떠한가, 로동 행정과 후방 공급 사업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등을 따져 보고 걸린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 주며 지도의 성과가 생산의 성과로써 실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화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 계획화 사업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사회주의 계획화는 엄격한 객관성을 띠여야 하며 군중 로선의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계획은 객관적 조건에 대한 정확한 타산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것은 바로 광범한 생산자 대중의 지혜를 인입함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은 반드시 생산과 관리를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책임 일'군들이 생산 조건에 대하여 제일 잘 아는 대중, 생산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대중과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당과 국가 앞에 나선 정치 경제적 과업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동원적인 계획이 작성될 수 있으며 또한 세워진 계획이 매일 매시각 철저히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계획화 사업 체계의 매개 고리들을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이 원만히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계획화 수준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시달된 계획이 매일, 매월, 매분기, 지표 별로 엄격히 수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하며 특히 원료, 자재의 생산을 가공 공업에 선행시키는 원칙을 견지하고 1 개월 분 이상의 자재, 원료 예비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965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의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면서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로동 행정 사업과 절약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고리이며 경제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오늘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기술 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만 생산을 더 빨리 장성시킬 수 있으며 우리 앞에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종업원 1 인당 생산을 높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로력 문제의 해결; 물자 절약, 원가와 건설비의 저하, 질 제고와 품종 확대 문제도 모두 주로 여기에 달려 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을 장애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전개하면서 선진 기술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부단히 취하여야 한다.

지도 일'군들은 무엇보다 먼저 생산 계획과 함께 기술 발전 계획을 직접 틀어 쥐고 그 실행을 위한 물질 기술적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산에 더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며 현존 설비들을 더욱더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술 혁명 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며 그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연구 사업을 잘 지도하여야 한다.

기술 혁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대중의 력량을 적극 인입하며 기술 혁신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것이다.

오늘 대중 속에서는 가치 있는 새로운 기술 혁신안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다. 지도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창의 고안, 합리화 운동을 적극 장려하고 도와 주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발기가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생산에서 능률을 높이며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지체 없이 도입 일반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며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우리는 지난 시기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나라의 생산력을 급격히 발전시켰던 것처럼 도처에서 새 기술을 창조하고 도입하는 전 군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면적 기술 혁명 수행에서 일대 고조를 이룩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 지도에서 제기되는 다른 하나의 과업은 로동 행정 사업과 절약 투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로력과 물자, 자금을 극력 절약하면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운영의 중요한 원칙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력을 극력 절약하며 있는 로력으로 생산을 증대시킬 데 대한 당의 원칙을 철저히 관

철하여야 한다.

우선 생산 부문과 비생산 부문 간, 생산 부문 내에서는 기본 부문과 보조 부문 간의 로력 배치의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물질적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로력자 수가 더 빨리 장성하는 것이 합법칙적 현상으로 된다.

지도 일'군들은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의 로력 배치의 균형을 보장하면서 매개 생산 단위에서 로동 조직을 부단히 완성하고 근로자들의 생산 조건을 철저히 보장해 줌으로써 단위 로동 시간의 리용률을 더욱더 높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로동 정량 사업을 개선하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하며 로동 규률을 확립하고 로동 보호와 후방 공급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과 적극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산 로동의 합리적 리용과 함께 물자 자원을 극력 절약하여 과거 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부문에서 물자의 보관 관리와 그 지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특히 물자 소비 기준을 낮추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물자의 절약 투쟁을 제품의 질 제고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함으로써 제품을 더 가볍고 성능이 높게 생산하며 적은 자재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제 기관들과 기업소들에서는 항상 소비 기준, 원가, 수익성 등과 같은 지표의 수행 정형을 분석하며 그것들을 개선하는 데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지역, 모든 단위에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며 일'군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기풍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정치 경제적 위력과 인민 생활을 더 빨리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함에 있어서 각급 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방 당 조직들과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만 대안 체계의 위력을 더 급속히 발양시킬 수 있으며 기술 혁신, 절약 투쟁도 강화될 수 있다.

특히 당 조직들은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키잡이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해당 단위의 전반적 사업을 끌고 나가면서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고 당 정책의 집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당 조직들은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당원들이 생산 실천에서 항상 모범이 되게 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주동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당 조직들은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 전체 근로자들이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며 모든 부문에서 긴장한 태세를 견지하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맡겨진 혁명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는 데 이악하게 달라 붙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 명확한 투쟁 방향과 목표, 당과 대중과의 불패의 통일 단결, 이미 축성하여 놓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밑천, 인민 경제의 관리 운영의 개선,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 이 모든 것은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과 7 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새 전투에서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1957년, 1958년에 발휘하였던 것과 같은 혁명적 기세를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열으키며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자!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과 당 생활의 강화

정 일

간부들은 당의 핵심 력량이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의 지휘 성원들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수립된 다음에 그의 정확한 실현 여부는 전′적으로 간부들의 정치 사상적 준비 정도와 조직자적 능력, 혁명적 투지와 완강한 전개력 여하에 달려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간부가 다 건전하고 사상 수준이 높고 다 한결같이 당 정책을 받들고 당성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도, 사회주의 건설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다 문제 없이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401 페지).

우리 당은 항상 간부 사업에 제 1 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혁명적 자질을 높이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당과 수상 동지의 부단한 배려로 간부 대렬의 질적 구성은 전례 없이 강화되였으며 간부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그러나 혁명은 계속 전진하며 생활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부단히 심화 발전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는 간부들의 혁명적 자질을 더욱 높일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혁명적 수양을 일층 강화할 것을 필수적인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은 자체 학습과 더불어 혁명적 실천 특히는 그들의 당 생활을 통하여 실현된다.

간부들은 자기의 당 생활 과정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세련된 혁명 투사로, 인민적 사업 작풍과 혁명적 사업 방법을 소유한 유능한 지휘관으로 자신을 부단히 단련할 수 있으며 혁명적 수양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을 높이며 그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당 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지휘 성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관건적 문제로 제기된다.

* *

간부들은 자신을 혁명적으로 부단히 수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고 불요불굴의 혁명 투지를 배양하며 인민적 사업 작풍을 완성해 나갈 수 있으며 지휘 성원으로서의 혁명가적 자질을 더 잘 갖출 수 있다.

혁명적 수양은 간부들에게 있어서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다.

간부들은 우리 당 핵심들 속에서 선발된, 당성이 높은 사람들이지만 누구나 다 처음부터 모든 면에서 완성되고 준비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적지 않은 간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도 낡은 사회에서 물려 받은 소부르죠아 사상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 하고 있으며 간혹 지휘 성원으로서의 혁명적 단련이 부족하고 령도 방법과 작풍이 세련되지 못한 간부들도 없지 않다.

많든 적든 간에 간부들의 사상 생활, 사업 작풍, 도덕적 품성 등에서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부족점들은 우리의 사업 발전을 저애하며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한 실천 활동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에게 아직 잔존하고 있는 소부르죠아 사상 잔재는 그 뿌리가 깊고 또 외부로부터 그 영향이 부단히 작용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것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문제는 오직 부단한 혁명적 수양과 사상 단련을 통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

오늘 우리 혁명이 더욱 심화되여 감에 따라 간부들에 대한 요구가 부단히 높아지는 사정은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한다.

사회주의 건설을 더 높은 단계에로 추켜 올리기 위하여 우리 앞에는 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련′이어 제기된다. 당의 뜻을 받들고 이 방대한 과업 수행에 떨쳐 나선 대중의 창조적 열성은 비상히 앙양되고 있다.

현실은 간부들이 혁명적 수양을 강화하여 사회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자기의 사상 의식 수준과 령도 작풍을 계속 완성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는 계속 전진하는데 혁명 대오를 지휘해야 할 간부들이 자체 수양을 게을리한다면 그들은 불피코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 가지 못 하게 될 것이며 당과 혁명 앞에서 지닌 자기의 지휘자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때문에 간부들은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혁명적 수양에 힘써야 하며 혁명 앞에서 지닌 책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에 대한 요구성을 더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현 정세와도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오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반동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와 세계 도처에서 자기의 침략적 책동을 로골화하고 있으며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분렬시키기 위하여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 정세가 복잡하고 긴장된 환경 속에서 방대한 7 개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며 조국 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영접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을 계속 강화하는 것만이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역경에서도 당′적, 혁명적 립

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 정책 관철에로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혁명적 전개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수양은 혁명적 실천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천을 떠난 수양이란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으며 혁명 위업에 도움을 주지 못 한다.

애로부터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의 내용은 혁명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실천적으로 우리의 혁명 사업에 리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면 현시기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에는 그가 수행하는 혁명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높은 책임성, 강의성, 원칙성, 불요불굴의 투지, 혁명적 전개력과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 등이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간부들이 이러한 혁명 정신으로 자신을 확고히 무장하여야만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 타개하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중들을 확신성 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다.

간부들의 혁명성은 무엇보다도 혁명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이것은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기본 문제이며 특히 우리 혁명의 장기성, 간고성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제국주의가 지구 상에 남아 있고 사회주의가 아직 일부 나라에서만 승리한 조건 하에서 더우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가 채 승리하지 못 한 우리 나라의 조건 하에서 우리는 앞으로 장구한 기간 국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 투쟁을 지휘해야 하며 오직 간부들이 이 투쟁의 선두에 서서 견결히 싸워야만 혁명의 최후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몇 천년을 두고 이룩하지 못 한 웅대한 규모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그것도 적과 대치하여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다른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싸워 나가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장기적이고 간고한 투쟁이며 따라서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치렬하고 복잡한 계급 투쟁을 동반하고 있다.

혁명 승리의 마지막 봉우리에 다다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앞으로도 간난신고가 중중첩첩이 가로놓일 수 있으며 우여곡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어려운 일과 쉬운 일, 궂은 일과 좋은 일을 가리면서 안일하게 생활하며 사업할 수 없다. 오직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라도 서슴 없이 바칠 줄 아는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살며 일해 나가야 한다.

간부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힘을 다하며 혁명 사업과 인민 대중의 운명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 지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사상 관점,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혁명의 전망을 내다 보고 군중을 확고히 인도하며 언제나 로동 계급의 립장에 서서 혁명의 리익을 고수하며 난관 앞에서 굴하지 않고 혁명 승리를 끝까지 보장하는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또한 온갖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 의식과 생활 양식, 현대 수정주의, 기회주의 사상 조류들의 침습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간부들이 조선 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남반부 혁명에 대하여 잠시도 잊지 않고 생각하며 그를 완수하기 위하여 긴장된 태세로 사업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그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간부들이 항상 조선 혁명에 대하여, 남반부 혁명에 대하여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결코 사소한 안일성과 해이성도 발로되지 않을 것이며 긴장되고 검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모든 혁명 과업을 조국 통일의 위업과 결부시켜 수행하기 위하여 더 많이 머리를 쓰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중요한 것은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간부들의 이러한 기풍은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당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세〉만 부르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 것이 아니다. 만세는 안 불러도 사업을 잘 하는 사람,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당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한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327 페지).

보는 바와 같이 일'군들의 혁명적 기풍은 무엇보다도 그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어떻게 접수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 데서 뚜렷이 표현된다.

특히 군중 속에서 당의 정책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의 관철을 위한 사업을 직접 책임 지고 조직하고 집행하는 간부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을 확립하는 문제는 간부들의 수양에서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며 간부들의 정치적 자각성과 혁명적 자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표징으로 된다.

간부들이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불굴의 강의성과 혁명적 전개력을 발휘할 때만이 그들은 항상 당'적, 혁명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확신성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

당 정책 관철에서 일'군들의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하려면 우선 매 시기 제기되는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정책은 우리 나라에 구체화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사업과 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으로 된다.

당 정책을 잘 모르고서는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자기의 혁명적 주견과 립장을 튼튼히 세울 수 없다.

그러므로 간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 정책 특히는 자기 부문의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심오히 연구하고 그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깊이 파악하며 그것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 집행하는 습성을 철저히 배양하여야 한다.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또한 간부들에게 불굴의 강의성과 혁명적 전개력이 요구된다.

당이 내세운 정책은 말로써가 아니라 매개 부문 앞에 부과된 당'적 과업 집행을 위한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은 항상 구체적인 조건과 정황 속에서 진행되며 그 과정에는 예견하지 못 하였던 크고 작은 난관들이 제기된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당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의 혁명가다운 강의한 의지와 완강한 전개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이 나라의 살림'군답게 당과 혁명에 조금이라도 더 리익을 주기 위하여 항상 머리를 쓰며 밤'잠을 자지 않고 이악하게 노력한다면 당 정책이 더욱 철저히 관철되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다음으로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혁명적 군중 관점과 령도 작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간부들의 혁명적 자질은 결국 군중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령도 작풍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사회주의 건설에 대중의 창조적 열성을 남김 없이 조직 동원하며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결속시키는 사업은 간부들의 군중 관점과 령도 작풍에 크게 달려 있다.

당 정책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집행을 조직 지도하는 간부들이 관료주의, 형식주의적으로 사업한다면 결국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사회주의 건설에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없다.

혁명은 군중을 위한 사업이며 군중 자신의 사업인 것 만큼 군중에 대한 관점 문제, 령도 작풍 문제는 곧 혁명에 대한 간부들의 태도 문제에 귀착된다.

간부들이 주관적으로는 혁명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천에 있어서는 대중을 홀시하며 대중에게 명령하며 대중의 리익을 침범하게 되였다면 그는 벌써 자신이 혁명적 립장에 확고히 서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도 일'군들이 대중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투쟁하는 까닭이며 그들이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령도 작풍을 소유한 까닭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이로부터 간부들이 군중 관점과 령도 작풍을 확립하는 문제는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사상 상 문제이며 따라서 부단히 완성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수양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은 우선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본질을 철저히 체득하여야 한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근저에는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이 놓여 있으며 그 내용에는 맑스-레닌주의 령도 작풍이 집중적으로 체현되고 있다.

우리 당의 실천적 경험은 간부들이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본질을 깊이 연구 파악하고 실천 활동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군중에 대한 더욱 정확한 태도와 관점을 가지게 되며 자기의 령도 작풍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간부들이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낡은 사상 잔재와 《틀》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군중 속에 들어 가 허심하게 배우며 그들과의 산 련계를 맺으며 그들의 애국적인 발기를 지지하며 그들의 앙양된 혁명적 기개를 새로운 로력적 위훈에로 옳게 조직 동원하는 당'적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체득하는 것은 군중 관점과 령도 작풍의 확립에서 선결 조건으로 된다.

간부들의 령도 작풍을 확립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그들이 항상 당원들과 군중들의 선두에 서서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신작칙하는 것이다.

간부들의 이신작칙은 일찌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작풍의 하나이다.

평북도 창성군, 벽동군 당 위원회 지도 일'군들의 경험은 간부들이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연구 침투시키는 사업에 제 1 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위하여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그의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며 자신의 수범으로써 대중을 교양하며 대중과 한 덩어리가 되여 그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는 당 정책이 어김 없이 성과적으로 관철된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인간성과 문화성 제고는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의 고상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중과의 련계, 사람과의 관계를 단순한 행정 실무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혁명 동지들의 호상 관계에까지 발전시켜 나간다.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

며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이끌고 나가는 것은 그들의 품성에서 고유한 것이다.

군중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서는 동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혁명가로,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동시에 간부들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감정을 풍부히 소유하고 례의 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문화 위생적으로 생활할 줄 알아야 한다.

간부들의 정치적 준비와 인간성은 문화성에 의하여 더욱 풍부화된다. 일'군들의 문화성을 높이는 것은 공산주의자로서의 다방면적인 소양, 혁명가적 품성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된다.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하기 위한 자체 학습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당이 오늘 간부들 속에서 학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강조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다.

간부들은 학습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옳게 파악하고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며 자각적인 학습 기풍을 세움으로써 자체 수양을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하기에 힘 써야 한다.

자체 수양을 위하여 간부들이 중요하게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하여 자신의 정치 사상 리론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동시에 특히 혁명 전통을 심오하고 폭 넓게 연구 체득하는 것이다.

항일 투사들의 간고한 투쟁과 생활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단련과 수양의 산 모범이며 그들의 투쟁 업적과 혁명 정신, 인민적 사업 작풍과 사업 방법은 오늘 우리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귀감으로 되고 있다.

항일 투사들의 산 모범을 성실히 배우며 그와 같은 정신으로 일하려는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세련된 혁명가로 자라 날 수 있으며 자체 수양을 급속히 완성해 나갈 수 있다.

*　　　　*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자체 학습과 함께 그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다.

간부들은 혁명을 위하여 배우며 혁명적 실천 활동 과정에서 자신을 부단히 단련시켜 나간다.

실천 활동 과정을 통한 혁명적 단련이 없이는 진실로 맑스-레닌주의적인 립장과 관점, 세련된 령도 방법과 작풍 등 공산주의자들에게 고유한 혁명적 품성을 배양할 수 없으며 로숙한 혁명가,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없다.

이것은 군중 지도 사업의 경험이 적고 혁명적 단련이 부족한 젊은 간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간부들의 혁명적 실천 활동은 그들의 당 생활 과정이다.

왜냐 하면 간부들의 당 생활은 곧 그들의 정치 활동이며 혁명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간부들은 당 생활을 강화하며 당'적 위임을 성실히 집행하는 행정에서 자기의 당성을 단련하고 령도 작풍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실천적 경험은 만일 간부들이 당 생활에 성실하게 참가하지 않을 때에는 당과 혁명에 충실하려는 주관적 욕망이 높은 경우에도 현실 생활에서 뒤떨어지게 되며 대중과 유리됨으로써 자기의 부족점을 제때에 시정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자신을 의식적으로 단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간부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는 문제는 그들의 당'적 수양과 혁명적 단련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간부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서 당 생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당'적 요구의 기본은 간부들이 당 생활 규범을 옳게 인식하고 그가 차지하고 있는 직위와 공로를 불문하고 례외 없이 자신의 당 생활을 자각적으로 조직하며 총화하는 것을 습성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원래 당원들이 당 생활에 참가하는 태도는 어디까지나 자각적이며 자주적이여야 한다. 그러나 간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당원들보다 그 준비 정도가 높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당 생활 지도에서 노는 역할과 군중 사업 지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며 그들에게 부과된 당'적 책임이 무겁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간부들은 당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당'적 위임 실행에서 항상 당원들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간부들의 당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 규약 학습을 심도 있게 진행하며 당 규약 상 의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자체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간부들이 당 규약 상 의무를 당 정책 및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밀접히 결부하여 깊이 파악하는 동시에 자체 실정에 맞는 실천적 방도를 찾아 낼 때까지 매 조항마다 따져 가면서 진지하게 연구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규약 상 의무를 한 조목씩 따져 가면서 학습하는 과정은 곧 간부들이 자기의 당 생활 정형을 스스로 검토하고 총화하는 과정으로 되며 거기에 기초하여 실천적 방도를 찾아 낸다는 것은 당 생활 규범에 어긋남이 없이 일하며 생활하려는 당'적 자각성의 표현인 것이다.

이처럼 간부들이 당 규약 상 의무에 기초하여 자신의 당 생활을 자각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그들 속에서 당 생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이여의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본 고리로 된다.

간부들의 당 생활 체계 확립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적 분공에 대한 자각적 태도이다.

간부들에게 있어서 당'적 분공은 당

조직과 자기 자신의 높은 요구성에 기초하고 있다.

왜냐 하면 간부들에 대한 당'적 분공의 주되는 내용은 자신의 혁명적 수양을 높이며 당원들과 군중들을 교양 개조하며 실천적 모범으로 군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는 등 높은 책임성을 요하는 무거운 과업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적 분공은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간부들의 의식적인 투쟁과 자각적인 열성, 그리고 필요한 실무적 준비에 기초해서만 성과 있게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간부들은 자기에게 당'적 분공이 차례질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당'적 분공을 받으며 항상 일을 찾아서 그것을 자각적으로 집행하는 습성을 배양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당 생활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또한 필요한 것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자기 당 생활을 스스로 총화하는 기풍을 수립하는 것이다.

당 생활에 대한 일상적인 총화는 간부들이 당성을 단련하며 혁명적 수양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간부들의 당 생활 총화의 중심이 어데까지나 그들의 혁명적 수양을 높이는데 있는 것 만큼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간부들이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신의 결함과 부족점에 대한 자체 검토가 심각하면 할수록 그 만큼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세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부들이 당 분조 회의, 당 세포 총회, 집행 위원회 등 소속된 당 조직들에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을 검토 비판할 용의를 가져야 하며 매일 자기 스스로 당 생활을 총화함으로써 사소한 결함이라도 제때에 고쳐 나가야 한다.

간부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 생활 지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간부들의 당 생활은 자각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간부들이라 하여 그들의 자각성에만 의존하고 지도를 적절히 배합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점을 제때에 시정할 수 없으며 그들의 혁명적 자질을 계통적으로 높일 수 없다.

그러므로 각급 당 조직들은 간부들의 당 생활을 전면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계통적인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당 기관의 책임 일'군들이 간부들의 당 생활을 직접 장악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간부들의 당 생활을 장악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상응한 지도 수준이 요구되며 그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책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책임적 일'군들은 그 위치로 보아 바로 이러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부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사업하는 과정을 통하여 간부들의 당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양하며 실'속 있게 도와 줄 수 있다.

또한 책임 일'군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만이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를 당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만일 당 위원회의 책임 일'군들이 간부들의 당 생활을 직접 장악하지 않고 부서에만 일임하거나 수준 어린 일'군들에게 맡기고 만다면 이 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될 수 없으며 오히려 당 생활에서 그들의 자각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당 위원회 부서들, 특히 조직부, 선전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부와 선전부는 자기의 기능에서 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 생활을 지도하는 부서로서의 본질적 사명은 동일하게 수행한다. 간부들의 당 생활 지도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두 부서는 항상 통일적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조직부는 매개 간부들의 당 생활을 계통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나타난 본질적 편향들과 개별적 일'군들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강구하여야 하며 선전부는 료해된 자료에 기초하여 결함과 부족점을 시정하기 위한 교양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에서 부서들의 기능이 높아야만 그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지도 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간부들이 당 생활을 건전하게 하도록 적절한 방조를 줄 수 있다.

당 위원회는 또한 간부들의 당 생활을 직접 장악 지도하는 한편 그들이 속하고 있는 당 세포의 역할을 높이는 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모든 당원들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간부들에게 있어서도 당 생활의 거점은 역시 소속된 당 세포이다.

그러므로 간부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에서 주는 지도와 그들이 속한 당 조직의 통제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 응당하다. 이 량자를 결합하는 것 즉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상급 당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지도와 해당 당 조직의 통제, 당원 대중의 밑으로부터의 통제와 결합하는 것은 간부들을 혁명적으로 세련시키는 가장 위력하고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이다.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을 높이며 당 생활을 강화하는 문제는 결국 항일 혁명 투사들처럼 혁명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유능한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부들의 공산주의 교양과 자체 사상 투쟁을 밀접히 결합함으로써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모든 간부들이 당 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자신을 부단히 혁명적으로 단련한다면 당원들의 당 생활 지도에서와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의 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군중 사업 지도에서 더욱 훌륭한 지휘관으로서 기여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의 상업의 역할

정 혁 남

사회주의 하에서의 상업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상업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를 실현하는 데서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 과정에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를 잘 실현하는가 못 하는가에 따라서 공업과 농업 생산의 발전 속도,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 로농 동맹의 강화 등 사회주의 건설에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성과적 해결이 크게 좌우된다.

《사회주의 농촌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김 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43 페지).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를 발전시키는 데 항상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이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왔다.

1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상품-화폐 관계의 발생 발전과 운명을 같이 하는 력사적 산물이다. 이는 사회적 분업의 발전 과정에서 농업으로부터 수공업이 분리되고 상품-화폐 관계가 발생함과 함께 발생하여 여러 사회에 걸쳐 부단히 발전하여 왔다.

오늘 사회주의 경제 체계가 확립된 우리 나라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인민 경제 부문 간 련계의 중요 형태의 하나로서 부단히 강화 발전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 경제 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부터 오는 필연적 현상이다.

우리 나라에는 이미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자본주의적 소유는 완전히 청산되고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만이 남게 되였다.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인민 경제의 2 대 부문인 사회주의적 공업과 농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공업과 농업이 자체의 재생산 과정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을 호상 교류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하에서도 상품-화폐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도시와 농촌 간의 이러한 생산물의 교류는 그 많은 부분이 상품 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품 교환이 매일과 같이 반복됨이 없이는 사회주의적 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일찌기 레닌은 《…대규모 〈사회화된〉 공업의 생산물과 농민의 생산물과의 교환, 이것이 사회주의의 경제적 본질이며 그 토대이다》(레닌 전집 제 32 권, 417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그전 사회에 존재하던 상업적 련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의 성격은 소여 사회에서 지배적인 생산 방식의 성격에 의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되며 그것은 또한 도시와 농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계급들 간의 경제적 관계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전 생산 방식 하에서 상업적 련계는 지배 계급이 농민을 착취하며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 그것은 바로 공업 생산물과 농업 생산물의 부등가 교환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하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되며 공업품 가격이 일방적으로 등귀하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 현상으로 된다.

최근 년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농산물 가격과 공업품 가격의 변동 동태는 이것을 잘 말하여 준다. 최근 10 년 간 미국에서의 농산물 도매 가격은 11%나 저하된 반면에 기타 상품 가격은 28%나 더 등귀하였다.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에서도 공업품(주로 미국의 잉여 상품을 기본으로 하는) 가격이 해마다 급격히 등귀되고 있는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재생산을 보장할 수도 없는 정도로 폭락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근절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계급적 대립이 청산된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에서는 불평등이 완전히 제거되고 새로운 관계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로농 동맹에 기초한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 자체의 본성과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의 점차적 소멸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즉 로동 계급의 국가는 착취 계급을 타도하는 데만 리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상품-화폐 관계와 관련된 제반 경제적 공간들을 주동적으로 리용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공업과 협동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농업 간의 상업적 련계는 이전 사회의 그것과 구별되는 원칙적인 차이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 경제 하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가 완전히 등가적 원칙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공업 생산물과 농업 생산물 간의 등가적 교환—이것은 농산물 수매 가격과 공업 상품 가격의 합리적인 조절을 통하여 부단히 완성된다. 이것은 로동 계급과 농민들 간의 계급적 리해 관계의 공통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차이는 또한 비조직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련계가 없어지고 공고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련계가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련계는 사회주의 국가가 작성하는 수매 계획과 농촌 상품 공급 계획에 의거하여 수매 및 상업 기관들이 자기의 계획적인 활동을 통하여 실현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 농촌에 대한 착취자였던 도시는 오늘은 농업 생산력의 장성과 농민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강력한 기지로 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에서의 이러한 원칙적 변화는 경제 생활에서 그것이 노는 역할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농촌에 대한 상업 자본의 침투를 실현하고 농촌의 계급 분화를 촉진시키며 농민 대중을 상업 자본가에게 예속시켜 착취와 빈궁의 도가니속에 몰아 넣으며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 경제적 대립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공업과 농업,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와의 밀접한 련계를 보장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본질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적극 기여하게 된다.

상업적 련계를 통하여 국가는 한편으로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소농기구와 각종 비료, 농약들을 계획적으로 농촌에 공급하여 줌으로써 농업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 생산물을 제때에 실현해 줌으로써 농촌에서 협동 경리의 강화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부단한 확대 재생산을 보장한다.

또한 상업적 련계를 통하여 농촌 주민들의 화폐 수입을 장성시키고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자극하며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의복, 신발, 가정 및 문화용품들을 원만히 공급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문화용품들과 위생용품들의 공급을 통하여 농촌 주민들의 소비 구성을 부단히 개선하고 그들의 생활 양식을 사회주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도시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로 부단히 접근시킨다.

우리 나라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실현하는 상업은 농촌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업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복무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를 통하여 농촌이 도시 경공업에 필요한 각종 농산 및 축산물 원료를 계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공업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며 생산된 공업 상품을 제때에 실현시켜 공업 발전을 촉진시킨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를 통하여 식량과 육류, 채소, 과실 등과 부식물을 공급함으로써 도시 주민들의 식생활 조건을 부단히 개선하며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킨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 도시 주민들과 농촌 주민들의 생활의 균형적 향상을 보장하며 로농 동맹을 강화하고 종국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소멸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여야만 농촌에 공업 상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업 상품에 대한 농촌의 수요를 장성시키고 상품의 실현을 촉진하여 공업 발전을 더욱 추동할 수 있다. 또한 이 련계를 강화하여야만 농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도시 주민들과 공업의 식량 및 원료 수요를 보장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수입을 장성시키고 농촌 경리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김 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의 이러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매 시기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으며 이 문제를 항상 정확히 해결하여 왔다.

2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각이한 단계에서 상업적 련계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서로 다르게 설정된다.

농촌에서 협동화가 완성되기 이전 시기에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가 주로 상업적 련계에 의하여 실현되지 않을 수 없으며 상업적 련계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로 된다.

과도기 초기에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의 실현에서 상업적 련계가 가장 중요한 형태로 되는 것은 대규모 공업과 소농 경리 간의 경제적 기초의 차이와 관련되며 더욱 중요하게는 소농 경리의 특성과 관련된다.

아직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가 축성되지 못하고 개인농 경리가 지배적인 과도기 초기에는 사회화된 공업과 분산적인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 자체가 심히 제한된다.

다른 한편 상업은 농업 생산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생산 수단과 소비재를 공급하며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 축성을 위하여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농업 생산물을 확보하며 개인농 경리를 점차 사회주의의 길로 인도하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농업 생산 장성에 대한 개인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업의 급속한 부흥 발전과 나아가서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은 과도기 초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 상업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상업적 련계를 부단히 확대 강화하여 왔다.

당은 조건이 성숙되는 차제로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 형태를 창설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리면서 주로 상업적 련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과도기 초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여 왔다.

소비 조합 상업 체계를 비롯한 각종 상업 및 수매 체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가격 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등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이 취한 제반 조치들은 공업 생산물과 농업 생산물의 교류를 원활히 보장하고 공업 및 농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활의 향상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놀았으며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착취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협동화의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작용을 놀았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시기에 와서 상업적 련계의 위치는 그전 시기와는 다르게 규정된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생산적 련계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며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 기본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호상 관계,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공업에서 생산되는 일부 생산 수단을 농촌에 공급하면서 주로는 협동 농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상업적 련계의 의의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농촌 경리의 생산물이 증대됨에 따라 농촌에서 상품 생산물의 량이 장성하고 그 실현 통로가 확대되며 농촌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소비적 수요도 더 커지게 된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실현에서 상업적 련계가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선 증대되는 상품 농산물의 적시적 실현을 보장하고 농업 생산의 증대를 자극하며 농촌 주민들의 화폐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수매 통로를 합리적으로 정비 확장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더우기 최근 2~3 년 내에 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농산물을 수매 공간을 거쳐 국가의 수중에 집중하게 되는 조건에서 수매 통로의 정비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수매 체계, 수매 방법, 수매 가격 등 제 문제의 정확한 해결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수중에 들어 오는 농산물의 수량과 그 품종 구성이 규정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국민 소득의 분배, 공업과 농업 간의 소득 분배가 크게 좌우되며,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수입 수준이 규정된다.

당은 농산물 수매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최근 년간 수매 체계를 업종 별로 전문화하고 그 통로를 매개 시, 군에까지 확대하는 일방 상업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수매 방법과 형식을 광범히 도입하게 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였다.

현시기 수매 통로의 정비에서 당이 특별히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은 가격 문제이다.

당은 가치 법칙 작용의 구체적 측면들과 협동 경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동 농장들에서 지출을 보상하고 재생산을 위한 축적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별적 농산물의 생산에 지출된 필요 로동량에 엄격히 기초하여 가격을 제정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 원칙에 의하여 인민 경제에서 중

요한 의의를 가지는 량곡, 육류, 과실 등 계획 수매 농산물의 수매 가격을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한편 자유 수매 농산물에 대한 수매 가격은 지방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에 준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의 정확한 조치들에 의하여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 흘러 들어 오는 농산물의 량은 최근 년간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국가 자유 수매량도 1961년에 비하여 1963년에 1.5 배, 작년 11월에 비하여 금년 같은 시기에 144.3%로 각각 장성하였다. 이리 하여 금년 한 해동안에만 하여도 육류는 2.4 배, 그 중 돼지 고기는 8.3 배, 가금류는 1.7 배로, 계란은 1.3 배, 과실은 2.3 배, 산채류는 2.1 배로 각각 그 수매량이 장성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수매량의 급격한 장성은 도시 주민들을 위한 식료품 공급 원천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한 도시의 영향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의 실현에서 주민들에 대한 공업 상품의 공급을 기본으로 하는 농촌 상업 체계의 개선이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촌 상점망은 바로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공업 상품이 흘러 들어 가는 기본 통로이며 농민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는 수단으로 된다.

우리 당은 이미 1958년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농업 협동화가 완성되고 협동 농장들이 리 단위로 통합되여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비 조합 상업을 협동 농장의 관리 하에 넘겨 줌으로써 협동 농장들이 자체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를 계획적으로 련결시키게 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농촌 상업으로 하여금 농업 생산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하였다.

당은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조성된 새로운 조건 즉 도시와 농촌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가 더욱 강화되고 상업적 련계의 규모가 확대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게 농촌 상업을 국영 상업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촌 시장을 보다 높은 사회화 수준에로 끌어 올렸으며 농촌에서의 상품 류통을 더욱 조직화하고 계획화할 수 있게 하였다.

당의 이 조치는 첫째로, 전 인민적 소유가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상업적 련계를 통하여서도 협동적 소유를 더욱 강력히 지원하며 둘째로, 장성하는 농촌 주민들의 상품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공업 및 농업 생산의 발전을 자극하며, 세째로, 농촌에서의 전반적인 상업 활동을 도시 상업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릴 수 있게 하였다.

당이 최근 년간 농촌 상업 분야에서 취한 모든 조치의 정당성은 농촌 상품 류통액의 부단한 증대와 그 질적 구성의 개선에서 표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 상품 류통액은 1956년에 비하여 1963년에 168%, 지난 해 11월에 비하여 금년 동기에 125.8%로 각각 장성하였다.

이것은 농촌 상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상품적 관계가 부단한 확대의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당은 오늘 협동적 소유의 특성과 개인 부업 경리의 존재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농민 시장 통로를 또한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 400여 개에 달하는 작고 큰 농민 시장들이 도시와 농촌의 각지에 포치되여 국가 상업 및 수매 통로를 보충하면서 그 손이 덜 미치는 부분에서 각종 농부산물과 세소 상품에 이르기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실현하며 농민들에게 생활 자료 구입의 일정한 편리를 도모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 농장 직매점 역시 상업적 련계를 실현하는 통로의 하나로 된다.

우리 당은 매 시기 상품 공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상업 활동에서 인민성, 계급성, 당성의 원칙을 견지하며 그것을 관철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다.

우리의 상업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복리 향상과 살림살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 지는 립장에서 일하는 것은 사회주의 상업 그 자체의 본질로부터 제기되는 필연적 요구이다.

인민성, 계급성, 당성 원칙은 인민 대중에 대한 상업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에서, 대중과의 련계에서 표현된다.

상업 일'군들이 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에 서서 사업을 할 때에만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하고 온갖 편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다.

특히 농촌 주민들의 수요를 일상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모든 상품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차례지도록 하며 품종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농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상품들이 매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관심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렇게 할 때 사회주의 상업의 우월성은 충분히 발휘될 것이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3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의 실현에서 군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군을 거쳐서 도시로 들어 가며 도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업 제품은 군을 거쳐서 농촌에 공급된다.

그러므로 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고리로 된다.

《군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지어 주는 거점으로 되며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 된다 …군이 공급 기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으며 이것은 결국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나 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김 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 건설이 전진하면 할수록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는 더욱더 밀접해지며 따라서 이 련계를 지어 주는 군의 역할과 기능도 더욱 커지게 된다.

군의 역할과 기능을 높임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군 자체의 공급 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군은 자체의 공급 기지를 강화함으로써만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 조건들을 축성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매개 군에는 직물, 장유, 가구, 제지 공장 등 평균 10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건설되여 농촌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비품들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매개 군에는 수십 개에 달하는 국영 상점망들이 조밀하게 포치되여 강력한 공급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군 자체 공급 기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바로 군내 지방 공업을 튼튼히 꾸리고 상품 자원을 풍족하게 조성하며 군내 상품 공급망들을 정비하여 정연한 상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당은 지방 산업 공장들의 물질적 토대를 계속 튼튼히 꾸리고 그 원료 기지를 확고히 조성하며 군내 주민들의 상품 수요에 적응하게 각종 생활 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한편 군내 공급망들의 업무 활동 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상품 자원을 계획적으로 집중시켜 농촌 공급에 필요한 상품 원천을 확고히 조성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의 상업 활동을 개선함에 있어서 당이 내세운 중요한 방침의 하나는 농촌 상점망을 주민들의 생활 단위에 최대한으로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합리적으로 포치하며 매개 농촌 지역들의 특성과 봉사 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적응하게 상품을 골고루 배정하

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 부락들이 분산되여 있고 생산 활동이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동 판매, 주문 판매 등 다양한 판매 형식과 방법을 도입하여 상품 공급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농촌 주민들의 생산 및 생활 조직에 상응하게 필요한 상품을 원만히 공급할 수 있으며 상업적 련계 실현에서 군의 역할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 실현에서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측면의 다른 하나는 군 자체의 수매 기지를 강화하고 수매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는 것이다.

군 자체의 수매 기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바로 군내의 땅과 산, 하천을 최대한 리용하여 수매 원천을 계획적으로 더 많이 조성하며 수매망들을 정비하여 공고한 수매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은 자체의 수매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매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농촌의 상품 생산물을 제때에 사 들임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생산 의욕을 부단히 높여 주며 동시에 도시·주민들과 공업에 대한 식량 및 농업 원료의 공급을 원만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어데를 가나 각종 농산물과 축산물은 물론 산채, 과실 등 수매 원천이 풍부하다.

또한 매개 군에는 식료품과 일반용품을 중심으로 수매망들이 업종 별로 조밀하게 포치되여 있다.

당은 수매 사업에서 가격, 품종, 지역에 대한 일체 제한을 없애고 농촌의 위탁 수매망을 포함한 모든 수매 기관들이 농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수매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부산물을 수매하여 도시에 공급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침이 실현됨으로써만 군은 농산물 수매가 가지는 본래의 사명에 맞게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 *

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시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의 실현에서 상업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함으로써만 우리는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더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공업을 더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며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소멸을 촉진 할 수 있다.

재일 동포들의 애국적인 문학 예술

장 형 준

우리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재일 동포들의 가슴 속에 조선 민족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자주 독립 국가의 공민으로서의 커다란 자부심을 안겨 주고 있다.

재일 동포들은 이러한 민족적 자각과 공민적 자부심을 가지고 제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생활권을 옹호하여 힘차게 투쟁하여 왔으며 또 투쟁하고 있다.

문학 예술의 발전은 항상 인민의 혁명적 운동과 보조를 같이 한다. 혁명 운동이 있고 민족 의식이 높은 그러한 곳에서는 민족 문학 예술이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문학 예술의 한 줄기로서 꽃피고 있는 재일 동포들의 문학 예술은 바로 그들의 줄기찬 애국 운동의 파도를 타고 발생하였고 그 거센 흐름과 함께 발전하였다. 그리 하여 그것은 재일 동포들의 지향을 반영하고 그들의 심장에 민족의 긍지와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겨 주고 그들을 투쟁에로 고무하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문학 예술로 되였다.

오늘 재일 조선 문학 예술은 동포들의 열렬한 사랑 속에서 활짝 꽃피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적 성과가 날로 커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일 동포들 속에서 문학 예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이 일본이라는 자본주의 나라에 페쇄되여 살면서 미일 반동 계층의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온갖 퇴페적인 부르죠아 반동 문학 예술의 포위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더욱 그러하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오직 조선 로동당의 문예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총련의 지도 하에 굳게 뭉침으로써만 그러한 엄혹한 조건 하에서도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치를 옹호하며 창작의 사상 예술성을 부단히 제고할 수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학 예술이 찬란히 발전하고 거대한 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조직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조직이 전체 작가 예술인들을 망라하는 강력한 문학 예술 부대로 되기 위해서는 옳은 지도가 보장되여야 하는 것이다.

1955년, 재일 조선인 총련합회의 창립은 문학 예술도 포함한 재일 동포들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력사적 계기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옳은 정책을 받들고 총련은 창건된 첫 날부터 전체 재일 동포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시키며, 그들을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의 옹호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반미 구국 투쟁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하였다.

총련의 지도 하에 전개된 재일 동포들의 애국 운동은 그 대로 재일 조선 문학 예술의 창작적 방향을 규정하여 주는 동시에 그에 혁명적인 생활적 내용도 주었다.

총련은 또한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을 옳게 교양하고 그 대렬을 튼튼히 꾸리면서 우리 당의 문예 정책을 관철하도록 그들의 창작 사업을 백방으로 지도하고 도와 주었다.

1959년, 총련의 지도 하에 문학, 미술, 연극, 음악, 무용, 영화, 사진 등 7 개 부를 총망라한 재일본 조선 문학 예술가 동맹(문예동)이 창립된 것은 재일 조선 문학 예술 운동에 있어서 참으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로 되였다.

문예동은 총련의 지도 하에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 예술적 수준을 제고하며 조직적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문예동은 창작에서 일체 불건전한 사상 요소들을 극복하고 반동적 부르죠아 문예 조류와의 투쟁을 강화하였으며 모든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혁명적인 민족 문학 예술 창작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게 하였다.

지난 6월에 진행된 문예동 제 3 차 대회는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 조직적인 장성과 거대한 창작적 성과를 과시하였다.

문예동 대렬은 제 2 차 대회 당시에 비하여 약 2 배로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통일 단결이 더욱 강화되였다. 또한 이제는 대다수의 작가들이 모국어로 훌륭하게 창작하게 되였으며 음악, 무용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 특성이 풍만하게 구현되여 우리 인민에게 고유한 민족적 정서와 향기가 잘 발양되고 있다.

각 부문의 총화는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과 공연 활동이 량적으로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 예술적 질이 현저히 제고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오늘 전체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동포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조국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며, 공화국의 재외 공민으로서의 당당한 생활권과 조국으로의 자유 왕래를 포함한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더욱 힘 차게 싸우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민족 단합과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며 조 일 량국 간의 문화 교류와 조 일 인민들 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재일 조선 문학 예술이 비단 60만 재일 동포들의 수중에 장악된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 인민의 혁명 위업에 복무하는 예리한 사상적 무기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재일 조선 문학 예술의 기본 주제는 조국과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이다. 이것은 재일 작가 예술인들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기본 열정이며 주되는 사상적 기백이기도 하다.

이러한 애국적 주제와 기백으로 일관된 문예 작품은 재일 동포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과 혁명 전통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교양적 의의를 가진다.

조국을 잃은 설음을 안고 수십 년 동안이나 이국 땅에서 갖은 고초를 겪어 온 재일 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은 조국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되고 있으며, 그들의 심장에는 조국을 오늘과 같이 륭성 발전시켜 주고 자기들에게 공화국 공민의 영예와 긍지를 안겨 준 당과 수령에 대한 존경과 충성이 한량 없이 흘러 넘치고 있다.

재일 조선 문학 예술은 조국에 대한 선명한 형상과 열렬한 기백을 통하여 동포들의 이러한 동경과 지향에 보답하면서 사회주의 조국의 오늘과 래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그들에게 안겨 주고 있다.

송가 《영광을 조국에!》에서 시인 허남기는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15 년의 세월을 두고 조국의 찬란한 업적과 위대한 힘에 대하여,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래일의 휘황한 승리에 대하여 온 심장을 다하여 격동적으로 노래하였다.

15 년이란 세월은 우리 우에도, 원쑤들의 우에도, 조국의 북녘 땅에도, 남녘 땅에도 정확하게 흘렀으나 그 동안에 조선 인민이 일제가 파괴한 폐허 우에, 미제가 마스고 간 재'더미 우에 이룩해 놓은 거대한 성과는 원쑤들의 계산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기의 시를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우리 우에
　호른 십오 년의 세월은
　　그 어느 일각인들
　　　잊지 못 할 나날,
　　　　귀중한 시간,
우리 우에
　호른 십오 년의 력사는
　　그 어느 한 때인들
　　　승리의 나날이 아닌
　　　　날이 없은 세월,
우리 오늘
　원쑤들에겐
　　백오십 년으로도
　　　천오백 년으로도 될
　　　　그 휘황한
　　　　　불사조의 나라,
　　　　　　천리마의 나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십오 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잔 가득히
　　　붉은 술 처서
　　　　하늘에 울리라
　　　　　목소리 높여
　　　　　　축배 올리자
　　축배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륭성
　　　　　　　　　　　　　발전을

　　　　축원하는 노래를!

이 시인에게 특징적인 정론가의 개성은 이 송가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자랑은 조국과 시대를 정면으로 노래한 이러한 정론적인 송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 화수의 서정시 《안해여, 오늘 따라》도 안해에 대한 살뜰한 생활적 감정을 통해 조국에 대한 고마움과 공화국의 아들딸 된 보람을 민족적 서정으로 잘 노래하고 있다.

서정적 주인공—시인은 조국 래왕의 요청 서명을 받으려고 가두에 나간 안해를 대신하여 조국의 열다섯 돐을 축하하는 저녁 상을 차려 놓고 가두에서 저고리 모습으로 절절히 웨쳤을 안해를 생각하며, 귀국하여 반백에 처음으로 청춘을 맞이한 부모들의 행복과 조국의 고마움을 가슴 후덥게 느낀다.

조국의 고마움을 가슴 깊이 느낀 서정적 주인공은 자기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다:

정말 안해여!
오늘 따라 더우기 생각나누나
우리의 인민 주권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 지금 여기서는 어려운 일 있어도
그 무슨 없어서가 아니잖소,
나라를 위해서 잠간
작업복을 입은 채 일터에 섰을 따름

우리에게 부족한 건 오로지
조선의 딸인 당신이
조선의 아들인 내가
수령님의 교시 대로
맡은 일 다하지 못 한 것 뿐이라오.
자, 안해여 어서 이리 앉으라우

그리고 저 창 밖을 보오
별 밝은 이런 밤도 드물었거니
래일의 경축 대회는 더욱 즐거울겠소

이 시에는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는 젊은 투사의 감정이 맥맥히 흐르고 있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 민족 교육을 실시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귀국 운동과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 투쟁을 적극 고무하고 있다.

오늘 일본에서는 조선 대학을 비롯한 우리의 각급 학교들에서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재일 동포들이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강력한 애국 운동을 전개한 데서 쟁취한 고귀한 투쟁 열매이다. 지난날 민족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미 일 반동의 야만적 탄압을 받고 가혹한 희생을 강요 당하였던가!

박 원준의 레뽀르따쥬 《4.24의 회상》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은 동포들의 이 완강한 투쟁과 원쑤들의 야만적 탄압을 력력히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글은 재일 동포들의 간고한 투쟁에 바쳐진 생생한 력사적 기록이며 원쑤에 대한 준엄한 론고장이다.

재일 조선 문학 예술에는 적들까지도 《자유 세계로부터 공산 세계에로의 력사상 전례 없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재일 동포들의 귀국 운동과 그 실현의 력사적 사실이 생동한 화폭으로 훌륭하게 고착되여 있다.

문예동 기관지 《문학 예술》을 위시하여 많은 잡지, 신문들과 단행본들에는 귀국의 감격에 바쳐진 시, 정론, 수필, 단편 소설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남 시우의 《귀국 시초》와 정 백운의 《또 다시 니이가다에서》를 비롯한 많은 문학 작품들과 《귀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롯한 미술 작품들, 그리고 무용, 연극, 영화 등 제 형식을 통해서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귀국 실현의 커다란 감격을 묘사하고 노래하였다.

또한 안 우식의 시 《불 타는 념원을 안고》, 바라이데 《동해의 노래》 등 작품들에는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재일 동포들의 슬기로운 모습이 잘 반영되고 있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제반 애국적 활동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동포들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다방면적으로 반영하면서 자기들의 작품들에 혁명가적 기질과 품성을 소유한 다양한 긍정적 주인공들을 전형화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총련 일'군도 있고 교원도 있고 학생도 있고 평범한 가정 부인도 있다. 그들의 년령과 개성은 각이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조국의 위대한 광망과 총련의 지도 하에 성장하고 발전한 새 형의 애국자들이며 시대의 위대한 정신과 민족의 고상한 감정 속에 사는 새로운 전형들이다.

조 남두의 단편 《비 오는 날》의 청년 김 봉길, 김 재남의 단편 《승리의 날에》의 교원 박 태인, 김 민의 단편 《포옹》의 녀교원 영숙이를 비롯한 많은 소설의 긍정적 주인공들은 모두 이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그들은 투쟁의 전초에서 헌신적으로 싸우는 사회 활동가-투사이기도 하고 감화 교양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심장에 민족적 자각과 재생의 뜨거운 씨앗을 심어 주는 새 형의 교육자—투사이기도 하다.

오늘 재일 동포들 속에서는 모범 분회 창조 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 오르고 있으며 상부 상조의 미풍이

더욱 보편화되여 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금후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애국적인 전형을 보다 많이 창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 사업과 문화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반미 구국 투쟁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다.

남 북의 우리 인민 전체가 한결같이 열망하고 있는 조국 통일의 위업이 오늘날까지 실현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창작과 공연 활동에서 미제와 박 정희 매국 역도를 반대하며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과 재일 동포들의 투쟁을 반영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다.

《반미 구국 투쟁의 노래》를 비롯한 가요들과 수 많은 시, 소설, 연극 《단 하나의 길》과 가무 《평화 통일의 길》 등과 같은 작품들이 그 실례로 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죄악을 백일 하에 폭로 규탄하면서 재일 동포들을 반미 구국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재일 동포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고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과 남반부 작가 예술인들에게 전투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각계 각층 동포들과의 민족적 단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첫 인사》나 《붕괴의 날》 등 작품들은 《민단》 계렬의 사람들이 력사의 변천과 총련 일'군들의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어떻게 각성되여 반미 구국 투쟁에 나서게 되였는가를 진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민족 단합을 기하며 《민단》 계렬의 동포들까지도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양적 역할을 논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과 공연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민단》 영향 하의 작가 예술인들과의 긴밀한 접촉과 련계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1961년에 3.1 운동을 기념하는 공동 집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하여 4.19 1주년을 기념하는 《조국 평화 통일 남북 문화 교류 합동 문화제》를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단》 산하 문화인들과의 단합의 기운이 급속히 높아졌다.

부문 별 단합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미술전, 합동 음악회, 공동 연극 연구 발표회, 공동 문집의 발간, 합동 문화제, 간담회, 축하 모임, 야유회 등 다양한 사업이 조직되고 있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조 일 량국 인민 간의 친선과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그들은 조국의 문학 예술의 성과를 소개하는 사업과 자기들의 창작 활동을 통하여 일본 인민에게 우리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고 있으며 또한 신일본 문학회를 비롯한 많은 진보적인 문학 예술 단체들과 일상적인 련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일본 문화인들로 하여금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제반 투쟁을 지지 성원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화국 정부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과 조국 통일 방안을 적극 지지하도록 하였으며 《한 일 회담》을 분쇄하는 공동 투쟁에서 련대성을 강화하였다.

재일 조선 문학 예술의 개화 발전은 작가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과 공연 활동에서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포들 속에서 광범히 진행되고 있는 군중 문화 사업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총련의 지도 하에 활발히 진행되는 군중 문화 사업은 재일 동포들에게 생기 발랄한 민족적 기개를 고취하며 그들의 애국심과 문화적 소양을 제고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놀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하층 단합의 중요한 마당으로도 되고 있다. 써클에 참가하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된 《민단》 산하의 동포들이 비일비재하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동포들 속에서 전개되는 군중 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현지에 내려 가서 써클을 직접 담당하여 지도하고 써클 지도자 양성에 힘을 경주하였으며 써클 경연 대회, 현상 문예 사업 등을 적극 조직 진행하였다.

재일 동포들 속에서는 조국의 문학 예술 성과를 보급하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중앙 예술단의 공연과 영화 및 사진 부문 예술인들의 활동 그리고 출판 사업이 큰 역할을 놀고 있다.

조국의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 또는 중앙 예술단이 무대에 올린 조국의 작가 예술가들의 연극, 음악, 무용 등과 조형 예술과 사진 작품들에서 조국의 웅장한 건설 모습과 조국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면서 재일 동포들은 조국을 더욱 몸 가까이 느끼며 조국의 영광과 민족의 자랑을 더욱 가슴 깊이 간직하는 것이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에 의하여 창작된 문학 예술과 재일 동포들 속에서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군중 문화 예술 활동은 총련 제 7 차 전체 대회 보고에 지적된 바와 같이 《재일 동포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교양하며 그들을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과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 옹호를 위한 투쟁에 적극 고무 추동하는 데 있어서 힘 있는 무기의 하나》로 되고 있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이미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총련 제 7 차 전체 대회가 문학 예술 부문에 제시한 과업과 그것을 더욱 구체화한 문예동 제 3 차 대회 결정을 받들고 조국 통일의 혁명 위업과 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 작품들과 서사시적 대작들을 더욱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항상 조국과 혁명을 생각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문학 예술의 사상 예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의 창작 사업에서 더욱 거대한 성과를 이룩할 것이다.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용주의 교육 리론

최 춘 갑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청소년들에게 《반공》, 숭미 사상, 민족 허무주의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침습시킴으로써 그들을 저들에게 굴종하는 무기력한 식민지 노예로, 값싼 대포'밥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반동적인 부르죠아 리론들을 퍼뜨리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에서 실용주의 교육 리론의 류포도 바로 그러한 책동의 표현이다.

미제는 수 많은 자기들의 교육 고문들과 사절단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용 교육학 교원의 양성, 교과서 편찬, 교육 방법 연구회, 각종 강습회, 강의 등을 통하여 실용주의 교육 리론을 광범히 류포시키고 있다.

반동적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오늘 남조선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을 규정 짓는 리론적 기초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용주의 교육 리론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 비판하는 것은 미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의 해독적인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다.

1

현재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독점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동적인 리론이다.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실용주의 철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주로 듀이의 도구주의(실용주의의 한 변종)에 기초한 교육학 사상이다. 남조선에서는 이미 듀이의 저작인 《교육 리론의 개조》, 《민주주의와 교육》, 《자유와 문화》 등이 번역 출판되였다. 또한 듀이의 제자이며 현대 미국 실용주의의 두목으로 지목되고 있는 써드니 훅크의 리론도 자주 소개되고 있으며 그의 저작 《력사와 영웅》이 번역 소개되고 있다.

듀이의 도구주의에 의하면 모든 과학적 개념, 리론, 사상, 륜리적 원칙들과 도덕적 규범들은 인간의 일정한 목적 달성을 돕는 소여 환경에 있어서의 특수한 도구, 수단의 역할을 놀고 있다. 만약 이 도구 또는 수단이 인간에 의하여 제기된 일정한 목적 실현에 복무한다면 즉 계획했던 결과와 《성공》을 가져 온다면 그것은 진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도구주의는 현대 부르죠아지의 정신적 파산, 그 사유의 퇴화를 실증해 주고 있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 부르죠아지가 과학, 도덕, 문화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유리되고 있다는 사실의 철학적 표현이다. 도구주의에는 황금, 리윤이 모든 것의 척도로 되여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잔인한 특징들이 일반화되여 있다.

씨드니 훅크는 자기의 한 론문에서 《철학은…〈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와 〈우리의 행동 요체(要諦)는 무엇이라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썼다. 그의 이 견지는 《딸라 철학》으로서의 실용주의의 본성을 그 대로 보여 주고 있다. 그의 말대로 한다면 철학의 가치와 의의는 그 철학 리론의 진리성이나 진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철학은 《유익성》이 있는 명제와 원리의 체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죤 듀이는 바로 이러한 황금 만능의 개인 리기주의를 부식하는 도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그의 실용주의 교육학 리론을 꾸며 냈다. 그는 철학은 《교육의 근본적 원리》이며 《광의의 교육 학설》이라고 하였다.

그는 교육학에도 도구주의 《진리관》을 그 대로 옮겨 놓았다. 따라서 후대들에 대한 교육은 독점 자본가에게 유용한 《일상 생활 경험》을 부단히 재조직하며 리익을 위하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르죠아적 기업심, 왕성한 모험가의 품성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실용주의 교육학은 《유전 결정론》, 《도구주의 도덕론》 등 일련의 반동 교육 리론들을 퍼뜨리고 있다.

실용주의 교육자들은 《유전은 진보 발전의 첫째 제약이다…유전은 곧 생득적 소질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리론은 극소수 특권층의 자녀들만을 《선발된》 수재로 떠받들고 절대 다수 근로자들의 자녀들은 선천적인 《멸둥아》라고 모욕하는 론리이며 악랄한 계급적 차별 교육의 론거로 되고 있다.

실용주의 교육자들은 인간 증오 사상을 로골적으로 드러내여 《불경제적인 저능아 교육》을 포기할 것과 소위 《수재의 개성 교육》을 떠들고 있다.

그들은 이에 대한 《과학적 기초》 자료를 각종 《표준화 검사》에서 찾고 있다. 이리 하여 《표준화 검사》의 결과 《대중의 경향성과 지향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협소한 실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표준화 검사》에서 얻은 지표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학자나 《위인》이 되려는 것은 《공상》이라고 선전한다.

이로부터 그들은 근로 대중의 자녀들에게는 과학 리론과 체계적 지식은 불필요하며 협소한 토막 《지식》만이 유용하다는 리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이것은 《유전 결정론》이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충실히 복무할 수 있는 지식만을 교육하려는 반동적인 리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실용주의 교육학은 또한 《도구주의 도덕론》을 류포하고 있다.

실용주의 진리관으로부터 출발하여 《도구주의 도덕론》은 도덕을 론할 때 항상 《유용》, 《성공》을 론하며 반동 부르죠아지에게 《유용한 것》이면 곧 도덕이라고 주장한다. 《도구주의 도덕론》에 의하면 부르죠아 사회 생활에 능률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도덕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다. 이로부터 실용주의자들은 《사회의 개조는 인간 도덕의 개변》에서부터 출발하므로 현 사회 제도를 변혁할 것이 아니라 타락된 《도의를 재건》하며 《민족성을 개조》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최근 박 정희 도당은 《도구주의 도덕론》을 모방하여 《정신 혁명》, 《민족성 개조》를 떠들면서 저들의 온갖 부패와 죄악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사실 남조선에는 도덕의 객관적 표준이란 없다.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천인 공노할 온갖 만행들이 《도구주의 도덕론》에 의하여 합리화되고 있으며 미제 침략자들의 동물적 본능과 《흥미》를 충족시키는 것이 《도덕》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용주의에 기초한 《도구주의 도덕론》은 결국 과학과 진리를 부인하고 몽매주의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례찬하며 미제의 침략과 략탈을 합리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실용주의자들에 의하면 교육자의 임무는 피교육자들을 《세계 공민》으로 준비시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세계 정부》 수립에 《성공》케 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남조선 청소년 학생들 속에 《반공》, 숭미, 공미 사상을 부식시키려는 미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에 적합한 처방전으로 되고 있다.

실용주의 교육 리론이 남조선 교육의 지배적인 리론으로 되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이 《리론》을 더욱더 금과 옥조로 떠받들면서 《군사 반공 도의 교육》, 《승공 교육》을 고창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의 교육 제도와 교육 정책의 리론적 기초로 되고 있는 반동적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착취 계급의 리해 관계를 반영한 것이며 따라서 이 리론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2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용주의 교육 리론의 반동성은 우선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실시하고 있는 《반공 도의 교육》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실용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신념이 결여되여 있는 것이 전 인류의 위기라고 하면서 《반공 도의 교육》으로 《민주주의》를 구원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미제에 충실한 남조선 당국자들은 실용주의 교육 《리론》을 비호 조장하면서 《반공 교육이나 도의 교육은 24 시간을 통하여 지도 실천되여야 하며 동시에 특정된 시간에 더욱 강조되고 이 교육이 실시되여야 한다…반공 도의 교육의 실효를 걷을 수 있도록 연구와 그 실천에 노력하여야 하겠다.》(《교육 평론》 1963년 3 호)고 떠들고 있다.

실용주의 교육 리론에 기초하고 있는 《반공 도의 교육》은 남조선의 각급 학

교 《교육 과정》 즉 과정안과 교과서, 참고서 등에 날날이 반영되고 있다.

남조선 《도덕》 교과서에는 《미국 사람들이 실제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진리라고 하는 실용주의를 국민 리상으로 삼은 것은 역시 홍익 인간(弘益人間)의 도리와 합치》된다고 씌여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홍익 인간》이란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는 뜻으로서 《삼국 유사》에 기록된 《건국 신화》의 한 구절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홍익 연간》의 도리란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 리념》 즉 실용주의 교육 리념을 민족적 외피로 분장한 것에 불과하다.

박 정희 도당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선포하고 《승공 통일》을 웨치면서 각종 교과서들을 통하여 《공산 침략의 위험》,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황당무계한 《반공》 악선전을 일삼고 있다.

그들은 종전의 《반공 교재》가 너무 분량이 적었다고 하면서 1963 년도 이후 《도덕》 교과서를 새로 만들고 교재 내용도 《반공》 일색으로 더욱 개악하였다. 례컨대 《고등 도덕》에서는 《대한 민국에 대한 공산 침략》이란 제목 밑에 북반부에서의 《군비 강화》를 운운하면서 학생들에게 반공 《사상 무장의 강화》를 설교하고 있다.

그들은 《반공 도의 교육》에 가장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그를 위한 《특정한 과목》들까지 설정하고 있다. 즉 력사, 지리, 경제 등 각이한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을 취급하는 학과목들을 하나의 《사회 생활》이라는 교과목에 통합시키고 이 과목에 대한 교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중상 비방과 숭미, 공미 사상의 설교를 일삼고 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사회 생활》 과목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화》할 것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특별 활동》 과목을 설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어 과목에서까지 《반공》 선전을 위주로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시기에 이르러 박 정희 역적은 《반공 도의 교육》을 《특정 시간》에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미술, 음악 등 모든 학과목들에 걸쳐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발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반공》, 《승공》의 구호 하에 학원을 더욱 군사파쑈화하고 있다. 고등 학교에는 일제 통치 시기와 마찬가지로 《교련》 과목을 설정하고 이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반공》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 특수 체육 등을 군사 훈련과 결부시켜 학생들에 대한 《훈육 단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의 제반 사실은 박 정희 도당이 고창하는 《반공 도의 교육》이 학원을 련병장으로 만들어 학생들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쉽게 끌어 내 보려는 간악한 술책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남조선에 퍼지고 있는 실용주의 교육 리론의 반동적 본질은 인간의 지'적 교육을 과소 평가하고 《실업 교육 진흥》이니 《1 인 1 기 교육》이니 하는 것을 공념불처럼 외우면서 근로 인민의 자녀들에 대한 부르죠아적 조기 직업 교육을 서두르고 있는 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실용주의 교육 리론에 기초한 학교 교육 체계는 청소년들의 전면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 교육을 불가능케 만들고 있다. 실용주의자들은 실천적 숙련, 로동 관습을 체득시키는 문제를 청소년들의 지'적 시야를 넓히는 문제와 대립시킴으로써 그들의 지'적 발전을 저애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학생들에게 실용주의적 사유와 기질을 배양하며 청소년들의 관심을 생활에 대한 협애하고 리기적인 실용주의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로 끌어 가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심지어 학교 교육 체계 자체와 각종 학교 과정안에도 실용주의적 직업 교육 리론을 도입하였다.

이로부터 남조선 학교들에서는 과학의 기초 과목, 리론 과목을 경시하고 유희, 수공, 실과(實科), 가사, 재봉 등을 중요 과목으로 도입하였으며 이 과목들의 시간수를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는 이 과목을 더욱 많이 학습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리하여 청소년들에게 자기 개인의 리익과 요구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설교하고 있다.

남조선의 어용 교육자들은 《교육 과정》 편성에서 실용주의 교육 리론의 《진보주의》 과정안을 표방하여 《통합의 원리》에 의거한다고 떠들면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의 자연 과학의 기초 과목들을 《수학》(국민 학교에서는 자연)에 통합하고 극히 적은 시간을 배당함으로써 과학의 체계마저 파괴하고 있다.

이 모든 조치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남조선 청소년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저들의 리윤 추구를 위한 온순하고 실천력 있는 노예로, 미국의 잉여 상품 판매에 필요한 하급 판매원과 전략 물자 개발에 소요되는 기능공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따라서 실용주의 직업 교육은 철두철미 미제와 그 주구들인 지주, 예속 자본가들에게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개인 리기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남조선 학생들의 모든 정력과 주의를 개인의 근시안적인 《성공》과 직업 알선을 위한 준비에로 돌리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상계》의 한 필자는 《듀이의 교육은…교수의 수단만 강조하고 그 목표를 애매하게 하는 결함이 있다…지식의 상아탑을 쌓는 고전 교육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미국식인 직업 알선을 위한…교육도 우리에게는 꼭 맞는다고 볼 수 없다. 그 리유는 도대체 우리 한국에는…직업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이와 같이 남조선 출판물들이 실용주의 교육 리론을 교육 정책의 기초로 삼는 데로부터 초래된 후과를 날카롭게 규탄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해방 후 19 년 간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실용주의 교육 리론에 기초하여 실시한 반동적 교육 정책은 남조선 인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 위정자들의 식민지 노

에 교육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지, 덕, 체 면에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풍모마저 갖추지 못하고 거의 모두가 기형화되고 있다.

특히 남조선 청소년 학생들 속에 《미국식 생활 양식》과 반동적 사상 독소가 침습됨으로써 극도에 달하는 부패 타락 현상이 발로되고 있다.

남조선의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는 개인의 《성공》, 《출세》, 《황금 만능》 등에 눈이 어두워 부패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모방하며 살인, 깽, 절도 등 온갖 범죄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늘어만 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 방송》에서도 《작년 1월부터 5월까지에는 2,809 건의 소년 범죄가 있은 데 비하여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에는 벌써 4 배 반인 1만 3,224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노예 교육 정책은 남조선 교원들의 생활 처지를 심히 악화시켰다. 대학 교원을 포함한 적지 않은 교원들은 최소한도의 생활비조차 받지 못 하여 《교원 행상인》의 처지에 빠져 있으며 그들 속에서는 극심한 생활고로 하여 아사자, 자살자까지 속출되고 있다.

특히 남조선 교원들은 과학을 연구하며 진리를 가르칠 자유가 없으며 심지어 량심적인 교원들은 가혹한 박해와 탄압을 당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교원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의 주인으로 육성되여야 할 청소년 학생들도 막대한 《공납금》, 《잡부금》의 부담과 파쑈적 탄압의 2중적 압력에 의하여 학교에서 쫓겨 나고 있다. 설사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졸업증이 실업증》으로 되고 있는 남조선 사회에서는 괴뢰군에 강제로 끌려 가거나 실업군 대렬에 편입되는 것밖에 차례지는 것이란 없다.

남조선 교원들 특히 청소년 학생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재난의 화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적인 식민지 노예 교육 정책에 있다.

오늘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교원들이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노예 교육 제도를 규탄하면서 반미 반《정부》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는 것은 천만 번 정당하다.

남조선의 한 교원은 《우리가 어찌 미국 교육을 그 대로 모방할 것인가?…이제는 좀 더 민족 고유의 전통을 살려서 우리 사회 실정에 알맞는 실질적인 교육에로 개편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조선 학생, 교원들 속에서 실용주의 교육 리론과 그에 기초한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배격하며 새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노예 교육에 복무하고 있는 반동적이며 부르죠아적인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파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반제 투쟁이 더욱 고조된 한 해

최 철 용

지난 1 년 간의 국제 정세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족적 독립 및 사회주의를 쟁취하며 고수하기 위한 인민들의 혁명 위업에는 더욱 유리하게,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에는 극히 불리하게 발전하였다.

국제 로동 계급의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이며 세계 혁명의 기지로서의 사회주의 진영은 금년에 더욱 장성 강화되였다.

쏘련에서의 3 인승 우주 비행선 《워쓰호드》호의 성과적 비행은 쏘베트 과학 기술과 사회주의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시위하였다.

중국에서의 첫 원자탄 시험의 성과적 진행은 미제의 핵 공갈 정책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세계 평화 위업에서의 커다란 승리로,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였다.

특히 1964년은 우리 당의 정확한 대외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간의 친선 및 협조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우리 당과 정부의 국제적 위신이 전례 없이 높아진 한 해였다.

4월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인도네시아 및 캄보쟈 방문, 11월과 12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의 아랍 련합 공화국, 알제리아, 말리, 기니아, 캄보쟈 방문 그리고 말리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와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의 우리 나라 방문 등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왕래와 접촉은 증대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아랍 련합 공화국을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과는 외교 관계가 설정되였다.

이와 함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나라 인민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간의 전투적 단결과 협조는 더욱더 강화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장성과 더불어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고 자본주의 나라 로동 운동이 장성하였으며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였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가일층 심각화시켰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을 더욱더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몰아 넣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국제적 규모에서 격렬한 계급 투쟁이 진행되며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해방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이며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이다. 제국주의는 멸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고 있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세 대륙을 휩쓴 혁명적 폭풍

금년에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은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로, 강력

한 혁명 력량의 투쟁 무대로 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거세찬 투쟁의 불'길이 타 올랐다.

금년은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서 무장 투쟁이 전례 없이 확대 강화되고 그 투쟁의 예봉이 최대의 국제적 착취자이며,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데로 더욱더 집중된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이 현대적 무기로 발톱까지 무장하고 《평화》의 막 뒤에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이 자기의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손에 무기를 잡고 정의의 위업에 궐기한 것은 정세 발전의 필연적 추세이다.

무장 투쟁은 아세아 특히 동남 아세아 지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세차게 전개되였다.

남부 월남 전 지역의 4 분의 3과 인구의 절반 이상을 해방한 남부 월남 인민 무장력은 금년 첫 10 개월 간에만 하여도 작년보다 2 배나 많은 1,987 명의 미군을 포함한 14만 명 이상의 적을 살상하였으며 1만 3,850여 정의 적 무기를 로획하고 754 대의 적 비행기를 격추 격상하였다.

특히 10월 31일 비엔 호아 비행장 습격 전투는 미제의 남부 월남 전쟁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는 사이공 부근의 비엔 호아 비행장을 기습하여 삽시간에 전략적 제트 폭격기들을 포함한 59 대의 미국 비행기와 293 명의 미군을 족쳐 버렸다.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는 지금 완전히 주도권을 틀어 쥐고 곡창 지대인 메콩강 삼각주의 대부분을 장악하였으며 사이공까지 육박하여 적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리 하여 미제의 《동남 아세아 전초 기지》는 송두리채 무너지고 있으며 《특수 전쟁》은 완전히 파탄되였다.

미국 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미국과 그 주구들이 남부 월남 인민들로부터 보다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개탄하면서 미국이 수십억 딸라를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계속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기적이 일어 나지 않는 한 남부 월남에서도 중국과 북부 월남에서와 같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썼다.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와 그와 합류한 라오스의 애국적 중립파 군대는 무장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해방 지역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민은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 도구인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하여 《한 손에는 호미를, 다른 한 손에는 총을》이라는 구호하에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자국의 안전을 고수하며 싸우는 북부 칼리만탄 인민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수카르노 대통령의 명령에 호응하여 2천500만여 명이 지원병으로 탄원하여 나섬으로써 인도네시아 인민은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고야 말 자기의 확고한 결의를 과시하였다.

무장 투쟁의 불'길은 중근동에서도 타 올랐다. 남부 예멘 인민 무장대는 영국 침략군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면서 무장 투쟁 전선을 확대하였으며 팔레스티나 인민도 손에 무기를 들고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식민주의의 마지막 철쇄를 끊어 버리기 위한 무장 투쟁은 각성된 대륙, 전투적 지역 아프리카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에 더욱 힘차게 전개되였다.

초기에 300 명의 인원으로 원시적인 활과 창을 가지고 궐기한 콩고(레) 인민 무장대는 오늘 중무기와 자동 무기로 무장한 수만 명의 대부대로 자라 났고 전국의 6 개 주 중 5 개 주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6월에는 북부 카탕가주 소재지 알베르빌을, 8월에는 동부 주 소재지인 스탠리빌을 해방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콩고(레) 인민의 투쟁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압력에 못'이겨 미제는 6월 30일 자기의 침략 도구인 《유엔군》을 콩고에서 끌어 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콩고 인민의 무장 투쟁과 함께 포도아 식민지들에서도 식민주의자들을 구축하기 위한 무장 투쟁이 강력하게 전개되였다.

이미 전국의 5 분의 1을 해방하고 북부 및 중부에 강력한 근거지를 창설한 앙골라 민족 해방군과 전국의 3 분의 2를 장악한 포도아령 기니아 유격대는 적들에게 부단한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화약고》로 된 모잠비크에서도 무장 투쟁이 날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무장 투쟁은 지어 아프리카의 남단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와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있는 코모로 제도에서까지 세차게 전개되고 있다.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은 아프리카 전 대륙을 휩쓸면서 저주로운 식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고 있다.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 속에서 1963 년 12월 이래 잔지바르, 케니아, 말라위, 잠비아 등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리 하여 아프리카에서는 전 대륙 인구와 면적의 80% 이상이 식민주의 억압에서 벗어 나 새 생활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오늘 2억 6천만의 아프리카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 책동에 대처하는 하나의 거대한 전투적 력량으로 되였으며 세계 반제 공동 전선의 일원으로서 미 제국주의 후면을 강하게 타격하는 위대한 혁명 력량으로 되였다.

꾸바 혁명의 고무적 영향 하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무장 투쟁을 포함한 반미, 반독재 투쟁이 강화되여 미제의 식민지 통치 체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새해의 첫 뢰성으로 된 파나마 인민의 반미 애국 투쟁에 고무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일련의 지역에서 무장 투쟁의 봉화가 더욱 높이 올랐다.

운하 지역에서 국기 게양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파나마 인민들의 반미 애국 투쟁은 미제 침략자들의 류혈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개되였다.

베네주엘라 민족 해방군은 산악 지대에 4 개의 유격 전선을 창설하고 도시에 진출하여 도처에서 미제의 군사 기지와 침략 기구 및 괴뢰 통치 기구를 까부셨으며 도미니카에서는 6 개의 유격 전선이 창설되였다. 과테말라에서는 3 개의 애국적 무장 부대가 인민 유격대로 련합되였으며 미제가 《진보를 위한 동맹》의 《핵심》이라고 호언 장담하던 콜롬비아에서도 미국의 기관, 기업소들이 련속 습격 당하였다.

이와 함께 페루, 브라질, 칠리, 멕시코, 아르젠틴에서 미국 독점체와 대지주들의 토지를 탈취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도 많은 경우에 무장 충돌에 이르렀다.

미제의 마수를 꺾어 버리기 위한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의 앙양은 미제의 침략 정책이 이 지역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미제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높아 가고 있으며 이 대륙에서 그들이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혁명 력량들 간의 전투적 련대성과 통일의 강화는 금년 1 년 간 정세 발전에서의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사회주의 진영, 국제 로동 운동, 민족 해방 운동은 현시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에 서 있는 강력한 혁명 부대들이다. 이 혁명 부대들의 전투적 련대성의 강화는 국제 로동 계급과 혁명적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된다.

특히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국제 반동들을 규합하여 련합된 세력으로 혁명적 인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조건에서 세계의 모든 반제 력량들의 단합과 련대성의 강화는 정세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오직 단결을 강화할 때 혁명적 인민들은 련합된 제국주의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금년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사회주의 진영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간에 더욱 긴밀한 협조와 단결이 이루어졌다.

4월 쟈카르타에서 소집된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 예비 회의, 6월 평양에서 진행된 아세아 경제 토론회, 카이로에서 열렸던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 11월 하노이에서 개최되였던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월남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회의》 그리고 카이로에서 열렸던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는 이러한 지향의 뚜렷한 반영으로서 반제 력량들의 단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과 리해 관계의 공통성으로부터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투쟁의 격류 속에서 호상 단합하려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이 숭고한 지향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

제반 사실은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의 거세찬 혁명적 폭풍이 날이 갈수록 더욱 광대한 지역을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혁명적 폭풍우 속에서 이 지역 인민들은 더욱 각성하고 있으며 강대한 혁명 력량으로 장성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마지막 생명선은 마디 마디 끊어져 가고 있다.

자주 자립의 막을 수 없는 추세

금년 정세 발전의 또 하나의 주요한 추세는 이미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아세아,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전개된 것이다.

신구 식민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면서 낡은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자기 력사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선 신생 독립 국가들에 있어서 가장 날카로운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원조》를 제공하고 그것을 미끼로 하여 그 나라 내정을 란폭하게 간섭하고 있으며 새로운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거액의 자본 수출과 각종 식민지 리권에 의거하여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의 중요 부분들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락후한 약소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자본 수출과 경제적 통제는 제국주의자들의 이 나라들에 대한 정치, 군사적 통제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 앞에 나서고 있는 성숙된 요구이며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의 련속적 혁명 과정이다.

독립을 달성한 민족 국가들에서 제국주의를 계속 견결히 반대하며 자기의 튼튼한 민족 경제를 건설할 때만이 이 나라 인민들은 식민지 통치에서 물려받은 세기적인 락후성과 빈궁을 퇴치하고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또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만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현대적인 과학 기술과 찬란한 민족 문화를 소유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도 자주적 립장을 견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예속에서 해방되여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 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견지하여야 할 기본 경제 로선이며 그것은 이 나라들에 있어서 하나의 합법칙적 과정이다.

자주 자립을 위한 신생 독립 국가들의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와 그 창조적 경험은 그들에게 특별한 고무적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진행된 아세아 경제 토론회의 모든 참가자들이 일치하게 강조한 바와 같이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서 얻은 우리 나라의 경험은 신생 독립 국가들의 생동한 모범으로 되고 있다.

아세아 경제 토론회 평양 선언에서는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이 이 나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물려 받은 경제의 기형성과 락후성을 청산하고 현대 과학과 기술 문화를 소유한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 것을 정당하게 지적하였으며 테자 구나와르다나 녀사는 조선이 제국주의를 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공고화한 자유의 보루라고 강조하였다.

금년에 아세아,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를 배격하고 외국인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체의 힘과 자기 나라의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 쓰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금년에 서방 독점체들의 재산을 국유화하는 광범한 깜빠니야를 전개하였으며 이미 영국인 기업소만 하여도 100 개를 몰수하였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야금 공장, 화학 비료 공장을 비롯한 수 많은 공장들이 일떠서고 있다.

쎄일론에서는 금년 초에 미 영 석유 회사들이 국유화되고 국영 석유 회사가 석유의 수입과 판매를 장악하게 되였다. 버마, 아프가니스탄도 자주 자립의 길을 따라 전진하고 있으며 캄보쟈 인민들도 침략적인 미제의 《원조》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 자립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 있다.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도 자주 자립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아프리카의 넓고 풍요한 나라 말리는 자신의 힘과 자기의 수단에 의거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 발전 제 1 차 5 개년 계획(1961~1965)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식민지 통치 시기의 단작 경리 체계가 개편되고 농촌 경리가 다각적으로 발전되게 되였고 공업 발전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금년 기니아에서도 농산물과 많은 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 것을 예견하는 인민 경제 7 개년 전망 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알제리아 정부는 《전 민족이 힘을 동원하여 자립적 경제를 건설》할 것을 선포하고 불란서인의 기업소와 반인민적인 자본가들의 기업소를 국유화하였다. 그리 하여 독립 후 지난 2년 간 알제리아에서는 375만 헥타르의 토지가 국유화되였으며 운수, 건축, 가공 등 식민주의자들의 회사와 각종 기업소 1,000여 개가 국유화되였다.

새 생활의 길에 들어 선 아랍 련합 공화국 인민들은 식민주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 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국유화된 이전 미, 영, 불 독점체들의 기업소들에 기초하여 자체의 국영 기업

소들이 광범히 조직되였으며 금년에 국영 공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장성되였다. 그리고 금년에 주요 농작물인 목화 생산은 력사 상 최고 기록을 이루었다.

가나 인민은 자기의 힘으로 33 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일련의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도 급속한 시일 내에 경제에서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자체의 튼튼한 민족 경제를 창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이처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이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하고 있는 제반 성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정책에 대한 타격으로 되고 있으며 아직 식민지 예속 하에서 신음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사분오렬의 서방 세계

금년 세계 정세 발전의 또 하나의 주요한 추세는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과 갈등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그 폭과 심도가 2차 대전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화되여 서방 세계가 사분 오렬된 것이며 미제가 《동맹국》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된 것이다.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은 그 어떤 일시적인 부분적 문제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리해 관계의 대립과 충돌로 발전하였으며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정치 경제적 발전의 불균등성으로 인한 필연적인 산물로서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동맹》을 내부로부터 뒤흔들어 놓으며 그들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특히 서방 진영 내부에서 자기의 지배와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그의 통제에서 벗어 나 서구라파의 《맹주》로 등장하려는 불란서 간의 모순은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였다.

《공동 시장》을 둘러 싼 미국과 불란서 간, 《공동 시장》 내부의 모순으로 서방 세계는 수습할 수 없는 위기와 불안에 싸여 있다.

미제는 《공동 시장》에 《관세 일괄 인하 계획》을 내려 먹임으로써 이 시장의 관세 장벽을 파 헤치고 서구라파 시장을 장악해 보려고 애썼으나 불란서를 포함한 《공동 시장》 참가국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말았다.

3월에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국과 《공동 시장》 성원국들 간의 회담과 5월에 제네바에서 있은 《가트》 각료 리사회 회의는 미국의 계획을 둘러 싸고 격렬한 론전과 암투만이 벌어졌을 뿐 아무런 전진도 없이 막을 닫고 말았다.

그 뿐만 아니라 《공동 시장》 자체 내에서도 농업 문제와 관련하여 리해 관계가 상반되는 불란서와 서독이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3월에 브류쎌에서 열린 《공동 시장》 6 개 국 농업상 회의는 농산물 가격의 《일원화》 문제를 가지고 일대 란투장을 이루었으며 뒤'이어 불란서가 《공동 시장》을 탈퇴할 《최후 통첩》을 공공연히 표명하여 《공동 시장》 내부의 모순은 더욱 심각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서방 출판물도 《과잉 농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농업 정책에 사활적인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불란서와 《전통적인 농업 보호 정책을 실시하는》 서독 간의 대립은 바야흐로 《공동 시장》을 《붕괴의 위기에 직면》케 하였다고 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이와 함께 《공동 시장》에서 배제되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영국은 수입 부과세를 올려 관세 장벽을 쌓아 놓음으로써 서부 렬강 간의 무역전도 더욱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그 밖에도 불란서, 서독, 일본, 서반아 등 15 개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기들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미국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미국의 《수출 금지》 정책을 파탄에 몰아 넣었다.

서부 렬강 간의 모순은 군사적 면에서 가일층 격화되였다. 미제가 다년간 침략과 전쟁의 기둥으로 삼아 온 나토, 세아토 등 군사 쁠럭들은 그 내부 모순으로 하여 붕괴 상태에 처하게 되였으며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둘러 싼 서부 렬강 간의 모순은 지금 나토의 존속 자체까지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5월 중순 헤그와 12월 파리에서 열린 나토 각료 리사회 회의는 험악한 싸움판으로 되였다. 회의에서 불란서는 미국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독자적 핵 무력》과 행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한 발'자국도 물러 서려 하지 않았으며 영국은 《대서양 핵 무력 창설안》을 전면에 들고 나왔다.

불란서는 지어 4월 27일 나토군 사령부에 소속되여 있는 자국의 해군 참모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여 나토에 또 하나의 타격을 가하였다.

미국 지배층들이 불란서가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커 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처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아우성을 친 것은 사태가 얼마나 엄중해졌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하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나토 《다각적 핵 무력 창설》로써 서구라파에서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제의 야망이 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동맹》이 지리멸렬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 평론가 쎌즈버거가 《나토에는 이미 분렬이 생겼으며 쎈토는 림종을 고하고 세아토는 사실 상 맥이 빠졌다》고 지적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금년에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은 또한 자본주의 세계 전반에 확대되고 특히 동남 아세아에서 집중적으로 발로되였다.

불란서는 《세계적 범위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특히 미국이 궁지에 빠지고 있는 지역들에 진출함으로써 미 불 간의 모순을 새로운 첨예한 단계에 이르게 하였다.

1월 27일 불란서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미제의 중국 《봉쇄》 정책에 새로운 파렬구를 형성하여 놓았으며 동남 아세아에서 독점적 지배를 수립하려는 미제의 정책에 자기의 《중립화》안을 대처시켜 이 지역에서 옛식민지 세력권을 회복하려 함으로써 그들 간의 모순과 대립은 표면화되였다.

4월에 마닐라에서 진행된 침략적 세아토 각료 리사회 회의에서 불란서는 남부 월남에 대한 미국의 절망적인 침략 정책에 합세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세아토 력사 상 전례 없는 사태가 조성되였으며 나토 리사회 회의에서도 남부 월남 문제는 그에 아무런 리해 관계가 없는 나라들이 관여할 바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여 나섰다. 이 회의들에서 파키스탄, 화란, 벨기 등 미국 《동맹국》들도 남부 월남과 동남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하여 로골적으로 불만과 비난을 표시하였다.

이 외에도 자본 수출, 시장, 무역 문제를 둘러 싼 미 일 간의 모순, 싸이프러스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나토 성원국들 간의 모순 등 착잡하게 뒤엉킨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이 더욱더 표면화되고 심각화되고 있다.

제국주의는 국제적 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 내부에서도 첨예한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어 갔으며 이로 인하여 계급적 모순이 첨예화되고 로동 운동이 앙양되였다.

미국에서 2월 이래 계속된 철도 로동자들의 파업, 4월에 있은 탄부들의 파업과 10월에 있은 부두 로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5월 영국 요크셔 탄광 탄부

들의 파업 투쟁을 포함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을 휩쓴 파업 선풍은 모두 이러한 실례들이다.

이 모든 사실은 금년 1 년 간에 정치, 군사적 패권과 식민지 리권을 위한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이 극도에 달하였으며 그들의 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죽음 앞에서의 발악과 모험

멸망에 직면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해 보려고 력사 발전의 거세찬 흐름에 필사적으로 반항하면서 저들의 침략적 본성과 악랄성을 여지 없이 드러내놓았다.

금년 미제가 세계 도처에서 감행한 모든 책동은 제국주의자들이 궁지에 빠질수록 더욱 발악하며 더욱더 모험에 매여 달린다는 것을 확증하여주고 있다.

케네디의 뒤를 이어 대통령의 자리에 들어 앉은 존슨을 두목으로 하는 미제는 《전면적 핵 전쟁》과 《국부 전쟁》, 《특수 전쟁》을 발광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들의 침략 체계를 재수습하고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라의 경제를 더욱 군사화하며 침략과 전쟁 모험에 날뛰였다.

미제는 계속 군비 확장에 광분하여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1960년의 460억 딸라로부터 1964년에 570억 딸라로 격증하였다.

미제는 특히 반제 투쟁의 폭풍에 의하여 저들의 식민지 통치 지반이 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는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 모험 책동을 로골화하였다.

6월에 호노룰루에서 동남 아세아 문제에 관한 《전략 회의》를 벌려 놓은 후 미제는 살인 장군 테일러를 사이공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하고 남부 월남과 동남 아세아에 대한 정책을 《군사 중점》으로 전환시켰으며 남부 월남에서 미군과 괴뢰군을 증강하는 한편 나토, 세아토 참가국들과 남조선, 대만, 호주 등의 고용군까지 남부 월남 전쟁에 끌어 들였다.

남부 월남 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의 악랄한 책동은 8월 초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월남 민주 공화국을 침범하고 여러 지역에 기총 사격과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9월 중순 또다시 제 2 차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적 행동을 감행 함으로써 더욱 로골화되였다.

그들은 또한 4월 19일 라오스에서 군사 정변을 조작하여 3파 민족 통일 정부를 파괴하였으며 5월에는 자기들의 전투 폭격기까지 이 나라에 투입하여 캉카이, 히엥쾅을 포함한 해방 지역에 대규모의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라오스와 캄보쟈에 대한 침략과 간섭에 유엔을 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함께 미제는 미 제 7 함대의 활동 범위를 인도양에까지 확대하여 인도네시아와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도전해 나섰으며 미 원자 잠수함을 일본에 기항시켜 아세아에서 핵 전략 체계를 수립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길에 들어 섰다.

그들은 남조선에 계속 무력을 증강하고 조선 정전 협정을 유린하면서 도발 행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 기지화와 일본 군국주의의 재무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그와 남조선 괴뢰들을 결탁시켜 동북 아세아 동맹을 조작하려 함으로써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은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

미제는 콩고(레)에서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공공연히 이 나라에 대한 무장 간섭의 길에 들어 섰다. 8월부터 수 많은 미 군사 인원과 비행기들이 콩고에 파견되였으며 11월에는 미국 비행기들이 벨기 락하산병들을 스탠리빌에 투하하였다. 미제의 지휘 하에 괴뢰 쫌베 도당은 1만여 명의 백인 고용병들을 해방 지역에 대한 공격에로 내몰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제는 《강경 로선》을 떠벌리면서 3월에 브라질에서 군사 정변을 일으켜 구라르트 정부를 전복하고 반동적 친미 괴뢰 정권을 조작하였으며 7월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는 미제의 책동에 의하여 꾸바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채택하였다.

이 모든 것은 미제가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그 침략적 본성이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파쑈화되고 반동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그들이 파멸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무모한 군사적 모험에서 찾으려고 발광적으로 날뛰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반 정세는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에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되며 사회주의 진영을 포함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반제 력량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평화도, 민족적 독립도, 사회적 진보도 쟁취할 수 없으며 오직 모든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 투쟁에 강력히 진출할 때 제국주의의 어떠한 아성도 능히 무너뜨리고 세계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과 전쟁 공포증을 배격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며 그들에게 타격을 주고 압력을 가함으로써만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김 일성,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우리 인민은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원쑤들에 대한 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항상 준비되고 동원된 태세로 조국을 철벽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원쑤들의 준동을 분쇄하고 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있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여 나오려고 무분별하게 발악하지만 이미 저들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정세 발전의 추세는 돌려 세울 수 없다.

그들이 모험적 책동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들은 더욱 큰 참패를 당할 것이며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될 것이다.

금년 1 년 간의 국제 정세 발전은 진보와 반동 간의 치렬한 투쟁에서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사회주의 력량과 모든 진보적 력량은 승리하고 있고 제국주의자들과 모든 반동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으며 반동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더욱더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자기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 반동 세력을 쓸어버리는 완강한 전투에로 나아갈 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에 의하여 조만간에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1964년 《근로자》 총내용

문 헌

편집국 론설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연구를 위하여

당 건 설

정치 및 철학

경 제 건 설

남조선 및 국제 관계

평론 및 서적 해제

문 답 학 습

382 17

10

근 로 자 제 24 호 (루계 262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12월 17일 발행 • 1964년 12월 20일

ㄱ—430757 값 40 전